

Issue Comment

2018. 3. 19

자동차

미국 현대·기아차 에어백 불량 이슈 점검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11

joonsung.kim@meritz.co.kr

RA 이종현

02. 6098-6654

jonghyun_lee@meritz.co.kr

NHTSA, 현대·기아차 모델에서 발생한 ZF-TRW의 에어백 작동불량 사건 전수조사 시작
16일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는 11년형 현대 쏘나타 및 12·13년형 기아 포르테의 전방충돌사고 (각각 4건·2건, 4명의 사망자 포함 10명의 사상자 발생)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수조사 시작. 조사의 핵심은 ACU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EOS (전압 과부하, Electrical Overstress Condition)에 따른 에어백 불량 발생여부.

현대차는 쏘나타 충돌사고 4건 중 3건은 이미 ZF-TRW가 공급한 ACU 불량으로 확인. 나머지 한 건 또한 같은 관점에서 ZF-TRW와 공동 조사 중이며, 관련 모델 15.5만대에 대해서 지난 2월 리콜 발표. NHTSA는 기아차 포르테 또한 같은 ACU를 사용했으며, 이미 지난 16년 140만대에 대한 에어백 리콜을 진행한 Fiat Chrysler 또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언급.

NHTSA는 ZF-TRW ACU 불량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같은 ACU를 장착한 모든 차종을 확인한다는 입장. 세계 2위 종합부품업체이자 세계 3위 에어백 공급업체인 ZF-TRW는 성명을 통해 당장은 비밀유지 약정에 의해 어느 업체가 자신의 ACU를 구매했는지 밝히기 어려우나, NHTSA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발표. (NHTSA 결함조사 원문 [링크](#))

관건은 최종 귀책업체 확인, 귀책여부에 따라 치명적 비용발생 가능

과거 Lexus 및 Takata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안전 문제는 업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세계 2위 에어백 업체였던 Takata는 에어백 전개 시 금속커버가 파열되며 탑승자 상해를 발생시키는 문제로 14년부터 19개 자동차 업체 총 4,310만개 제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고, 리콜비용·벌금·피해자 합의금 (총 20.4조원) 부담에 못 이겨 결국 파산 및 상장폐지, 매각 절차를 밟음.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라 ZF-TRW의 ACU 불량이 문제의 원천이라면,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품업체의 특성상 제2의 Takata 사태가 발생 가능하며, 현대·기아차의 리콜비용은 모두 ZF-TRW에게 귀속될 예정. 그러나 만약 ACU 불량이 아닌 완성차 설계의 문제였다면, 이는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정벌적 과징금 부담 사유가 될 수 있음. 아직 조사 시작 단계인 이번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3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3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